

하게 되므로 시간적 낭비와 인력에 소모가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격간호원으로써 다목적 사업을 전개 한다면 1 사람이 한번 가정방문 함으로써 3~4가지의 일을 동시에 시행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에토절은 유아격 간호원들이 이 벅찬 업무에 현재의 적은 보수로(보수라 함은 현재 간호 보조원들에 주는대우)중사 할수 없는 관계로 대우가 좋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간호원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자꾸 뺏기게됩니다. 또 현재 행정적인 System으로 보아 아무리 보건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난점은 보건소 업무가 진료사업에 중점을 두고사업을 올리는 데 더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 보건간호원은 본연의 업무인 보건간호사업을 전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그 일부분(즉 예방접종이나 전염병 환자간호)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실정에서 문젯점을 제시한다면 많은 문젯점이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토의를 바랍니다.

- 1) 보건간호원의 직급문제.
- 2) P.H.N의 기술을 위한 C. P.H.N Course와 같은 연수원 설치 문제.

토의결과

1. 교육문제

① P.H.N의 교육기관이 중앙에만(즉연수과정) 있으므로 지방에서는 지식연마를 위해서 가

기가 힘들다.

더구나 근무하면서 야간에다니기를 희망하는 회원이 많으므로 이곳 전남대학에 또는 조대에도 간호학과가 설치되어있으므로 C.P.H. NCourse를 한군데쯤 설치를 요망합니다. 일반행정직도 고등교육을 받을분을 위해서 행정 (대학원이란 과정을 만들어 공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② 당분간 설치되지 않으면 P.H.N의 단1주일정도세미나를 열어 새로운 학살에 지식을 얻도록 하자는의견

③ 자기혼자서 공부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P.H.N은 기혼자로서 집이 가면 가사에 힘을 써야하므로 독학 하기란 힘이들다.

2. 직급 문제

과거 시군보건소가 발족한지 10년이넘은 지금도, P.H.N의 위치가 5급에 멈추고 있는 실정임으로 자신의 위치가 확보

되어 있지않아 간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하향식 행정체제트 움직이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좀더 활동 할수 있는 위치가 확보될려면 보건간호과가 설치되어 자발적 사업계획이 전개되어야 겠습니다. 바람직한 직급은 도감독은 3급 갑 보건과장 3급을 일반보건간호원 4급갑

이 정도의 행정체제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3. 유니폼

보건간호원과 간호보조원을 구별할수있는부장

<이것은 곧 시정된다는 말씀이 있었다.>

4. 업무의 획일화

예 : 한가구에

- 보건간호원
- 결핵관리원
- 모자 가족계
- 획요원

이렇게 방문함으로써 주민자체에도 무리가오고 업무이행도 혼잡함.

그 룹 3

제 목

양호교사의 현실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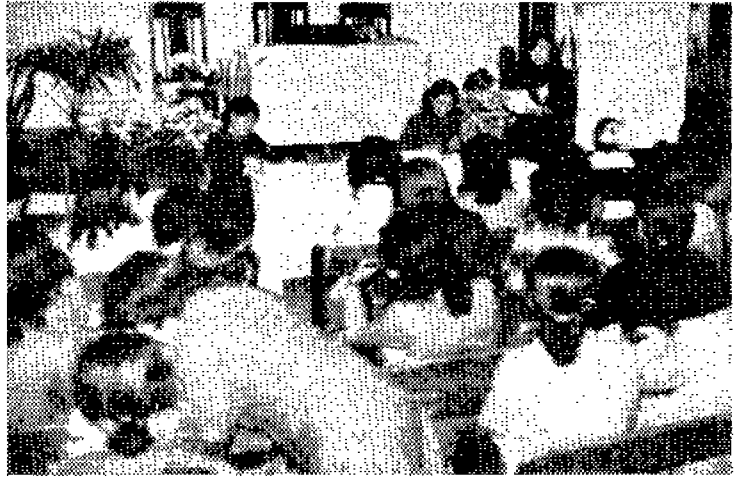
발표자 엄 영 희
<광주남국민학교>

전문 분야가 다른 학교라는 집단에서 양호교사 혼자서 그들과 융화되어 수천명의 어린이와 교사들의 건강을 증진 및 유지를 위해서 학교보건의 막

중한 책임을 지니고 근무하고 있는 양호교사이지만 양호교사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십분 발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위와 여건이 구

비되지 못해 매년 양호교사는 타적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도내양호교사 150여명에서 73년도 7.31현재 [간호학교 출신자 격증 소유] 양호교사는 39명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무자격 양호강사가 수천명 어린이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로 몇년 안가면 자격 양호교사는 하나도 없게 되고 모두 무자격 양호강사가 학교보건을 전담하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학교보건은 큰 장벽에 부딪치게 될 우려가 많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의 타격책을 하루속히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들자면 무자격 양호강사가 해마다 예방접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한 상태에서 수천명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무자격 양호강사가 광주시내만 해도 T.O 13명에서 6명이고 양호교사가 7명으로 반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초·중·고 일반교사들은 승진의 규정이 확립되어 평교사에서 1급정교사, 주임교사, 교감, 교장으로 승진될 수 있지만 양호교사는 수십년을 봉직해도 초임의 그자리에서 머물게 되니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므로 양호교사도 일반교사와 같이 승진의 제도를 마련하여 일반교사와 같이 승진의 규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만 현실에서 충실히 근무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인



지위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감한분의 말씀이 “양호교사가 학교보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양호교사의 지위를 교감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 놓아야만 수십명교사를 리드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적이 있는데 그분이 현실에서 느끼셨기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며 나역시 그 교감선생님의 말씀을 결실히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교사들이 때로는 자기의 상사인 교장·교감의 학교경영 방침에도 반발을 하고 호응을 잘 안해서 상사들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양호교사 혼자서 6·70여명의 교사들을 리드하여 그들의 협조와 조력을 받아서 4·5천명의 어린이와 6·70여명의 교사들의 건강관리를 이상적으로 실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우리들은 하루속히 이의 시정책을 강구하여 양호교사가 긍지를 가지고 굳건한

위치위에서 자신의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토의결과

- ① 교련교사의 교재선정.
간호전문학교와 고등학교의 교련 교재를 구분하여 교재를 만들도록 할것.
- ② 양호교사 기초초봉 개정이 시급하다. (사범고등출신과 간호고등출신의 동일초봉)
- ③ 양호교사도 일반교사와동등하게 승급할 수 있는 제도확립.
평교에서 1급
주임교사—장학사제도
- ④ 18학급 이상 학급에 양호교사 1명 50학급 이상에는 양호교사 2명을 확보하여 학교보건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해 줄것.
- ⑤ 무자격 양호강사는 간호학교 출신 양호교사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